



명사초대석 ③

張有鎮
(성우)

서울의 공해, 그중에서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한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엔 자주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에 스모그가 뿐옇게 낀 것처럼 답답하다.

대본의 주인공을 위해서는 탁 트인 목소리가 필요한데 웬지 내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상쾌한 감탄사가 필요한데 어딘가 걸끄러운 구석을 느낄때면, 더럭 겁부터 난다.

직업이 목소리로 유지되는 것이라, 이런 공기 속에서 혹시 목소리가 잘못되어 제 소리를 못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목소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가 주는 뉴앙스는 그 말의 전달에 엄청난 차이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울 때를 빼고는 일상생활에서 같은 값이면 좋은 목소리로 말을 하려고 한다.

공기가 맑아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하물며, 성악가와 필자와 같이 성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목소리는 단순한 생활조건이 아니고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그 목소리를 유지해주는 주변의 환경적 조건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공기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허겁지겁 목욕탕으로 달려가, 양치질부터 한다. 그냥 양치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구멍에 배인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려는 듯이 수 없이 물컵을 비운다.

그리고 꿈에서나마,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싶어, 새벽의 숲속과 노을지는 바닷가를 상상한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 멀리는 못 가더라도 광릉의 숲이나,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리라 다짐하며 잠든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에 의하면, 도시 공기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녹지의 면적과 아스팔트의 면적이라고 한다.

즉, 그 도시에 녹지의 면적이 아스팔트의 면적보다 넓으면 공기가 맑고, 반대로 아스팔트의 면적이 녹지의 면적 보다 넓으면 공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아스팔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자동차가 많다는 것으로 그 자동차의 배기 가스는 도시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녹지보다 아스팔트가 훨씬 넓은 도시로 자동차의 배기 가스가 서울의 공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필자의 직장이 있는 여의도는 아스팔트가 녹지보다 무려 수십, 수백배나 되어 말 그대로 아스팔트와 시멘트의 정글로 숨이 막히는 곳이다.

자동차의 경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KBS의 주차장엔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

나 요즘엔 주차장이 포화 상태고 심지어는 건물 앞 보도에도 자동차들이 줄지어 진을 치고 있다.

여러다가는 얼마 못가, 여의도의 그 넓은 광장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오싹 몸서리가 쳐진다. 그것은 한마디로 비극일 것이기 때문이다.

외화를 더빙하다가 화면 속에서 아름답고 맑은 자연을 만나면 마음도 상쾌해져, 목소리도 저절로 맑아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반대로 더럽고 답답한 골목에서 살인이라도 저질러지는 화면을 보면 놀음을 하면 웬지 불쾌해져 목소리도 주눅이 들게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도시 환경에 있어서라……

즉, 도시의 환경이 건강하고 맑아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건강하고 맑아진다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당면 과제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라고 하겠다.

특히, 필자와 같이 목소리가 직업의 도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목소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도시 공기의 질은 중요하며, 생존을 위해 숨을 쉰다는 조건에서도 우리의 공기는 하루 속 히 맑아져야 하겠다. ◀

* 필자약력

▲TBC 라디오 최우수연기상('80) ▲소리의 빛 연기상 수상('83)

(시내 각 대학 여론조사에서 성우부문 1위)

▲KBS 우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KBS 제2FM '장유진의 가요산 책'으로 DJ상 수상. ('85)

▲KBS 라디오 최우수 연기상('86) ▲대한민국방송대상 수상('87)

▲현재 출연작품

(radio): KBS 제2라디오 흡드라마 '사랑으로 크는 나무', 국군방송 '노래실은 희망엽서' DJ

(T.V) 제2TV '탐정 스펜서'—수잔 역 '개구장이 스머프'—똘똘이 역 '천사들의 합창'—호르케 역

張有鎮